



김선종(호남신대)

1. 머리말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는 구약성서 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책들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제2 성전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 책들은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율법주의를 낳은 책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¹

최근에 들어와 이 책들이 신학과 역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룹으로 나타나는 유대교의 기원들을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찾을 수 있고,² 오경을 비롯한 히브리

1 게오르크 슈타인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483. 원제는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Stuttgart: Kohlhammer, 2004).

2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사회상이 예수 당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위해서는 요아힘 예레미야스, 『예수 당

성경을 낳은 시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³ 많은 독자들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정작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정독할 때,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신학적으로도 치열한 여러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책을 훑아보면 더욱더 깊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벌어진 과거의 신비로운 역사와 종교는 독자의 많은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 글은 에스라-느헤미야서 본문이 진술하는 이야기 전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세밀하고 깊은 독서를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을 탐구하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에스라-느헤미야 연구를 위한 서설(序說, prolegomena)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주요 연구 주제들

1)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관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짜임새와 저자

우리말 성경에서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순서는 역대상하, 에스라-느헤미야서로 칠십인경의 순서를 따른다. 이러한 순서는 역대상하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고(대하 36:22-23), 에스라-느헤미야서는 그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의 역사를 다루는 점에서 시간의 순서를 바르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느헤미야, 역대상하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역대하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에스라-느헤미야

시의 예루살렘: 신약성서 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를 보라. 원저는 J. Jeremias, *Jerusalem zur Zeit Jesu*(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3 오경을 페르시아 제국의 용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을 위해서는 J. W. Watts (ed.), *Persia and Torah: The Theory of Imperial Authorization of the Pentateuch*(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을 보라.

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론이 없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서를 비롯한 이전 성경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역대상하가 에스라-느헤미야의 시대보다 앞선 시대를 보도하지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보충으로 간주되다가 나중에 부가되어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

전통적으로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시 말해 역대기 역사서라는 이름 아래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포함시킨 것이다.⁵ 그러나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신학과 역사 해석의 차이 등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책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⁶ 그런데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분리하여 여길 뿐 아니라, 필로(Philo)와 제롬(Jerome) 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별개의 책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⁷ 느헤미야 1장 1절이 에스라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책의 시작을 알리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같은 목록의 존재로 이들 두 책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고대로부터 논의된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관계는 현대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이해해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충돌하고 모순되고 반복하는 것 - 에스

4 노만 K. 갓왈드, 『히브리 성서 2 - 사회·문학적 연구』(김상기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94-195. 원제는 N. K. Gottwal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5 M. Haran, "Explaining the Identical Lines at the End and of Chronicles and the Beginning of Ezra", *BR* 2(1986), 18-22. 현대적 의미에서는 1832년에 존즈(Zunz)가 가장 먼저 주장했다. 민경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없이 가능한가?", 『선교와 신학』 36(2015), 80을 보라.

6 민경진, 『민교수의 구약해설』(인천: 도서출판 제이엔케이, 2013), 148. 1968년에 야렛(S. Japhet)과 1977년에 윌리엄슨(H. Williamson)이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역대상하와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19(2003), 447-448을 보라.

7 유진 H. 메릴, 마크 F. 루커, 마이클 A. 그리산티,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 구약의 세상과 하나님 말씀』(유창걸 역), (서울: CLC, 2016). 546. 원제는 E. H. Merrill, M. F. Rooker, M. A. Grisanti, *The World and the Wo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1).

라와 느헤미야의 귀환 순서, 두 사람의 개혁 정책, 반복되는 목록 등 - 으로 보이는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사실상 이미 히브리 성경과 고대 역본 역사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편집사 등의 역사비평의 방법이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데, 최근에 돌시(Dorsey)는 최종 본문의 형태에서 출발하는 공시적 관점에서 두 책의 짜임새를 아래와 같이 교차대구로 분석하여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단일한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a 스룹바벨의 귀환과 귀환자 명단(스 1-2)

- 귀환자 명단, 금, 은, 제사장 옷(2:1-70)

b 성전 건축과 대적자들의 반대(스 3-6)

- 주제: 반대, 유대인들의 성공 이야기

c 에스라의 귀환(스 7-8)

- 임금의 주제
- 강 저편 총독들에게 유대인들을 도와주라는 임금의 명령
- 1인칭 서술

d 중심: 백성의 정화(스 9-10)

c' 느헤미야의 귀환(느 1-2)

- 임금의 주제
- 강 저편 총독들에게 유대인들을 도와주라는 임금의 명령
- 1인칭 서술

b' 성벽 건축과 대적자들의 반대(느 3:1-7:3)

8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라는 주장의 자세한 논지를 위해서는 민경진, 윗글(2003), 447-462; 민경진, 윗글(2015), 75-101을 보라.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편집된 역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민경진, “휴 윌리엄슨의 에스라-느헤미야 편집가설 재고”, 『장신논단』 38(2010), 41-63을 참조하라. 에스라 6장 안에서 편집 과정에 대해서는 김래용, “에스라 3장 1절-4장 5절의 양식 비평적 분석”, 『구약논단』 29(2008), 88-108을 보라.

- 주제: 반대, 유대인들의 성공 이야기
- a' 스투바벨의 귀환과 귀환자 명단; 마지막 개혁(느 7:4-13:31)
- 귀환자 명단, 금, 은, 제사장 옷(7:4-73)⁹

그렇다면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유대교 전승 탈무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느헤미야서뿐 아니라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성서 본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에 따르면, 이들 책 안에 있는 수많은 목록 자료¹¹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일부 1인칭 서술문과 그와 다른 3인칭 서술문이 존재하는 사실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비록 이들 책에 기록된 사건들의 일부 자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저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으로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하나의 책으로 여긴 학자들은 이 책들의 저자를 익명의 역대기 사가로 보았다. 비록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역대상하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편집에는 역대기 사가가 개입하였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분리가 일반적인 가설인 최근에는 역대기 저자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두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차이에서 볼 때 한 명 혹은 같은 공동체의 저자가 역대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역대상하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반면(대상 9:1; 11:1, 4, 10; 12:38; 13:5, 6 등), 에스라-느헤미야에는 분명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9 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 – Malachi*(Michigan: Baker Academic, 1999), 161.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2016), 125-156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세 문학 단위체(스 1-6; 7-10; 느 1-13)가 문학과 신학의 공통점을 가지고 단일한 문학 구조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10 유진 H. 메릴, 마크 F. 루카, 마이클 A. 그리산티, 윌클, 554.

11 목록 자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김래용,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목록들의 연구”, 『구약논단』 43(2012), 129-153을 보라.

12 E. 젤린, G. 포러, 『구약성서개론』(김이근, 문희석, 민영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84-294. 원제는 E. Sellin, 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분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스 1:5; 4:1; 10:9; 느 11:4).¹³ 또한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성전 공동체를 신정정치로 이상으로 삼는다면,¹⁴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혼합 결혼의 원흉을 솔로몬에게 돌리고 있다(느 13:26). 최근에는 성전과 가까운 율법학자 동아리에서 저자를 찾거나¹⁵ 제사장 계열에서 기원을 찾거나¹⁶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레위 사람을 특별히 중시하여 구약성경에서 292회 가운데 65회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레위인 계열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저자를 찾기도 한다.¹⁷ 에스라-느헤미야의 저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메릴(Merrill)은 저자를 “앞으로도 밝혀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그 문제의 난해함을 드러낸다.¹⁸ 그래서 윌리엄슨(Williamson)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개론에서 저자보다는 자료에 대해 논하고 있다.¹⁹

2)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유대교의 기원에 대

-
- 13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the Place in Biblical Thought*(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7), 267-351.
 - 14 김지은, “포로 공동체와 역대기서에 나타난 솔로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2003), 27-48. 참고로 역대상하의 전체 65개 장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서술이 28개의 장에 할애되고(43.1%), 그 가운데 14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서술이다(21.5%).
 - 15 게오르크 슈타인스, 윗글, 480.
 - 16 H. G. M. Williamson, “Origins of the Twenty-Four Priestly Courses”, J. A. Emerton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 30; Leiden: Brill, 1978), 251-268.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2007), 113-116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제사장계 본문을 분석한 후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친제사장적 본문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 17 Kyung-jin Min, *The Levitical Authorship of Ezra-Nehemiah* (JSOTS 409; London - New York: T&T Clark, 2004);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17(2005), 78-96; 민경진, 윗글(2007), 112-128.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소형근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15, 각주 80은 레위 사람의 신분이 향상된 것으로 에스라-느헤미야의 저자를 레위 사람들로 보는 민경진의 견해에 반대한다.
 - 18 유진 H. 메릴, 마크 F. 루커, 마이클 A. 그리산티, 윗글, 554.
 - 19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 개론』(민경진 옮김), (서울: CLC, 2013). 원제는 H. G. M. Williamson, *Ezra and Nehemiah*(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한 것이다. 예수 당시 유대교 종파는 보통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유아기(enfance)로 불리는 기원후 1세기 정도까지 혈통으로는 유대인인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중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유대교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이러한 네 유대교 종파의 사상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결국 유대교와 분리하게 된다.²⁰

그렇다면 예수 당시 유대교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바로 제2 성전기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스라-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여 순수한 혈통주의를 주장하여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스 10; 느 13)한 것이 그들이 행한 종교개혁의 핵심 일진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유대교의 기원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에스라-느헤미야서에 영향을 끼친 종교 전승들이 존재하고 당대에 이들과 간접적으로 제휴한 전승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민족주의에 영향을 끼친 과거의 전승은 신명기 7장과 23장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 금지 조항은 신명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스라-느헤미야는 에스겔 학파(Ezekielian School)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겔 40-48장의 새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자 나시(נָשִׂיא)와 안식일 준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제기하는 흥미로운 주제이다.²¹ 에스라-느헤미야 이전에 신명기와 에스겔이 이들에 영향을 끼쳤다면, 에스라-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말라기 역시 십일조의 문제를

20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에티엔느 트로크메, 『초기 기독교의 형성』(유상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을 보라. 원제는 E. Trocmé, *L'enfance du christianisme*(Paris: Noësis, 1997).

21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179-223;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신학적 기원들”, 『구약논단』 47(2013), 137-140, 147-150.

다룬다(느 10:37-38; 12:44; 말 3:8).²² 이러한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종교 성향은 나중에 팽창주의적 국가를 규정하는 방식을 지닌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 신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블렌킨소프(Blenkinsopp)는 “하스모니안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영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계승자들”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²³

그러나 에스라-느헤미야 당시와 후기에 이들을 대척하는 종교 전승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표방하는 유대교는 일부에 불과한 것과 같다.²⁴ 에스라-느헤미야 당시에도 히브리 사상은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3 이사야와 롯기가 그러하다. 이사야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사 56:6-8). 야웨의 종은 못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한다(사 42:4). 이미 제1 이사야도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앗수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함으로써(사 19:25)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양대 강국인 애굽과 앗수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는 보편주의 사상을 강조한다.²⁵ 롯기는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대적으로 간주하는 모압 출신 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실을 증언한다. 롯기는 불필요할 정도로 ‘모압 여자’를 반복하여 말한다(1:4, 22; 2:2, 21; 4:5, 10). 사실 신명기 23장의 총회법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 백성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법의 배후에 있고,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2절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롯기는 바로 이 모압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롯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밝힐 뿐 아니라(4:22), 예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린

22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2018), 50.

23 조셉 블렌킨소프, 원글, 261.

24 오늘날 유대교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유대교의 세 부류로 나뉜다. 박준서, 『십계명 새로보기』(서울: 한들출판사, 2001), 90을 보라.

25 애굽(미스라임)과 앗수르는 이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에 나온다(창 10:6, 11).

다(마 1:5).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율법마저 거룩한 구원사를 위해 반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이신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라-nehemiah사이만이 유대교의 기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중요한 기원을 이룰 뿐이다. 그래서 블렌킨소프는 유대교의 기원들 안에서 에스라-nehemiah사의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이처럼 에스라-nehemiah는 자신들 이전의 히브리 종교 전승들을 취합하여 혈통주의적인 사상을 공고히 하고, 당대에 존재한 여러 사상과 대화하고 논쟁하여 이후 유대교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유대교의 기원과 관련하여 에스라-nehemiah사에 나오는 특이한 종교 그룹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떠는 자들’(스 9:4; 10:3)로 번역된 ‘하레딤’(חֲרֵדִים)이 바로 그들이다.²⁷ ‘하레딤’은 일종의 근본주의 자들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종교적 열심주의자들이었다. 에스라서의 보도를 따르면 백성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에스라가 보이는 가장 첫 모습은 기가 막혀 앉아 기도하는 것이었다(스 9:3-5). 때로는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이러한 에스라에 대해 ‘하레딤’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에스라에게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방 여자들을 가정에서 쫓아내는데 일조한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떠는 자’로 번역하는 것은 에스라-nehemiah 당시 유대교의 기원에서 한 종파를 이루었던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약점이 있다. 에스라 9-10장을 볼 때 개혁의 주체는 에스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스가냐(스 10:2)를 비롯하여 에스라를 지지하는 하레딤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적극 도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하레딤이 이사야 66장에도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스라서에서와 달리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묘

26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의 원서 제목의 부제는 ‘유대교의 기원들에서 에스라와 nehemiah의 위치’(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이다. 원제는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Grand Rapids: Eerdmans, 2009).

27 배희숙, “에스라-nehemiah에 나타난 유대 재건 정책,” 『장신논단』 30(2007), 62; 소형근,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 그룹 ‘하레딤,’” 『성경원문연구』 35(2014), 70-86.

사한다. 이러한 묘사에서 블렌킨소프는 이들을 포로기 이후에 주변으로 소외되고 몰락하여 종말론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된 사람들로 규정한다.²⁸ 이러한 점에서 코흐(Koch)는 에스라를 목시가의 전신(前身, predecessor)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²⁹ 더 나아가 블렌킨소프는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 역시 본질적으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떠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관찰한다.³⁰ 왓츠(Watts)와 악트마이어(Achtemeier)는 각각 이 본문이 하레딤과 비하레딤 사이의 갈등, 사독 계열과 하레딤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한다.³¹ 물론 구약성경에 유대교 종파를 가리키는 하레딤이라는 낱말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어렵고, 제한된 본문을 활용하여 종교 전승 사이에 벌어진 구체적인 논쟁과 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라-느헤미야 당시에 이미 오늘날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여러 유대교 종파의 기원이 존재했고, 그러한 유대교의 사상 논쟁은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 역사적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적 산발랏과 도비아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묘사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성전을 건설하고(스 1-6) 성벽을 중수한 개혁의 인물로 나타난다(느 1-7; 11-13). 그러나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볼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관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순서,³² 역사적 에스라와 역사적 느헤미야의 면모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성경이 진술하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 데에서부터 그들의 역사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까지 역사적 에스라와 느헤

28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28.

29 K. Koch, "Ezra and the Origins of Judaism", *JSS* 19(1974), 173-197.

30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223.

31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소형근, *윗글*(2014), 82를 보라.

32 장일선, "느헤미야 연대에 관한 새로운 고찰", 『*신학사상*』 31(1980), 759-768.

미야에 대한 의견의 폭은 매우 넓다.³³

먼저 역사적 에스라는 어떠한가?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본문에서는 학자로(느 8:1, 4, 13), 어떤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스 10:10, 16; 느 8:2), 또 어떤 본문에서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스 7:11, 12, 21; 느 8:9; 12:26). 구약학자들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학자(רַבֵּן)로서의 면모를 강조하여³⁴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일종의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보이고,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는 후대에 종교개혁가로서의 롤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소형근은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파견받은 에스라가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제사장 목록과 느헤미야 12장 10-1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족보에도 그의 이름이 빠져 있는 사실을 근거로 드는 블렌킨소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³⁵ 이러한 역사적 에스라에 대한 연구는 에스라서에 대한 편집사를 통해 재구성이 가능하다.³⁶ 여하튼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명령(וַאֲרַתְּחַשְׁשָׁתָּא מֶלֶךְ פָּרְסָ)과 왕의 명령(דָּתָא דִּי־אַלְהָךְ / טַעַם אֱלֹהֵי יִשְׂרָאֵל) 사이에서 충돌하고 모순될 수 있는 요구들을 에스라가 조화시켜 나갔을 것으로 묘사한다(스 6:14; 7:26).³⁷

다음으로 역사적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한 위대한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고, 따라서 그는 교회 지도자의 롤 모델로 흔히 회자된다.³⁸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땅의 백성들의 혼합주의에 맞

33 예를 들어, C. C. Torrey, *Ezra Studies*(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는 에스라 이야기를 허구로 간주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J. P. Weinberg, *The Citizen-Temple Community* (JSOTS 151; Sheffield: JSOT Press, 1992)은 포로이후 유다사회가 시민-성전 공동체였다는 이유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된 것을 의심한다.

34 J. M. 마이어스, 『에스라; 느헤미야』(국제성서주석 14;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41-142. 원제는 J. M. Myers, *Ezra-Nehemiah*, (AB 14; New York: Doubleday, 1981).

35 소형근, *윗글*(2014), 70-71;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15-116.

36 김윤이, “에스라는 누구인가?”, 『구약논단』 28(2008), 88-106.

37 H. G. M. 윌리엄슨, *윗글*, 148.

38 임경철, “느헤미야 리더십 연구”, 『신학지남』 293(2007), 196-231.

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순수한 유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하지 않게 제사장의 방을 차지한 이방인 도비아를 추방하고(느 13:4-9), 성벽을 중수하는 데 방해한 외부 세력과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느 4-6)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한 위대한 인물이다(느 6:15). 가난한 백성들의 상황 앞에 그 역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열심을 강변한다(느 5:14).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느헤미야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는 이방 여자들을 이른바 율법에 따라 가정에서 내쫓는다고 주장하지만 오경 율법 어디에서도 이미 결혼한 이방 여자들을 축출하라고 하는 율법은 없다.³⁹ 이방 여자들을 내쫓은 그에게 누구보다 가장 우호적인 사람은 이방 임금이고, 느헤미야 역시 누구보다 친 페르시아적인 면모를 보인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적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여 페르시아 임금에게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 반면(스 8:22), 느헤미야는 귀환 시점부터 페르시아 임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군대장관과 마병을 대동한다(느 2:9). 이를 목격한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고왔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홍경원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평가한다.⁴⁰ 느헤미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느 1:6, 11)이자 페르시아 임금의 종(느 2:5)이라는 복잡한 그의 자의식과 상황 때문이다. 이중우 역시 이방 여자를 추방하는 에스라의 급진적인 개혁이 배타주의적인 유대주의로 가

39 김선중, “레위기의 가족구조”, 『신학이해』 43(2012), 7-26. 조셴 블렌킨소프, 『릿글』, 106은 스 9:12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신 7:1-5를 극단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방 여자와의 결혼과 추방의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Christian Frevel, *Mixed Marriages: Intermarriage and Group Identity in the Second Temple Period*(New York: T & T Clark, 2011); Csilla Ssaysell, “According to the Law”: *Reading Ezra 9-10 as Christian Scripture*(Winona Lake: Eisenbrauns, 2012); David Janzen, *Witch-hunts, Purity and Social Boundaries: the Expulsion of the Foreign Women in Ezra 9-10* (JSOTS 350: London - New York: Sheffield, 2002)를 참조하라.

40 홍경원, “본문의 목적과 독자의 질문 -느헤미야의 회고록 읽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37-58. 그러나 우상혁, “역사를 품은 기도: 느헤미야 9장 5b-37절”, 『구약논단』 68(2018), 118-142는 느 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기도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반영하는 저항의 기도의 요소를 발견한다. 느헤미야서에서 간접적으로 페르시아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구절을 위해서는 같은 논문의 각주 34를 참조하라.

게 했고,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에서 고립되어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게 된 전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⁴¹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지만 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의 법대로 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경 어디에도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단지 제사장의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문제 삼은 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의 수가 귀환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비율이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⁴² 이방 여자들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개혁 또한 제사장들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⁴³ 더 나아가 블렌킨소프는 모압 사람 롯의 경우와 암몬 사람 아키오르(Achior)가 개종한 점(유딧 14:10⁴⁴), 아케메니드 시대와 로마 시대 사이에 유대인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과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결혼이 흔한 시절인 집회서가 위대한 신앙인의 목록에서 에스라를 언급하지 않는 사실 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한 것의 목표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⁴⁵

이러한 역사적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다 재건 정책에 항거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산발랏과 도비야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각각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으로 기술된다(느 2:10). 이들은 유다의 재건 정책을 반기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가장 강한 대적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방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엘리아십이 타락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은 최종 답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발랏과 도비

41 이종우, "에스라개혁의 '국제결혼 금지'에 대한 선교적 재고", 『선교신학』 37(2014), 245-276.

42 J. M. 마이어스, 윗글, 169.

43 배희숙, 윗글, 62-63, 69.

44 "아키오르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공동개정』)

45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206, 241.

야 역시 야웨주의자로 보이며, 이들의 후손은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도 강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벧호론 출신으로 엘레판틴 문서에 따르면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아마도 페르시아가 사마리아에 파견한 암몬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⁴⁶ 도비야를 ‘중이었던 암몬 사람’(느 2:10)이라고 할 때 중(בְּנֵי)은 왕정의 고급 관리를 가리킨다.⁴⁷ 산발랏의 딸이 엘리아십 대제사장의 손자와 결혼하여 예루살렘 대제사장 가문과 혼맥을 맺었고(느 13:28),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에 참여한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과 사돈 관계에 있었던 사실(느 6:18) 또한 그가 고위층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마리아가 유다에서 극명하게 분리된 것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이고, 에스라-느헤미야 당시에는 그러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자신들도 야웨를 섬기는 자들로서 성벽 중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스 4:2). 이윤경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권력을 힘입은 자신의 경쟁자인 산발랏과 도비야를 눌러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 역시 이들과 경쟁하여 페르시아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와 행한 논쟁은 단순히 종교 논쟁이 아니라 정치 논쟁으로 보아야 한다.⁴⁹ 페르시아의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원을 입은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정책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던 땅의 백성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암몬과 모압 지역에서 봉쇄된 유다를 만들게 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

46 장일선, “느헤미야의 사회개혁”, 『신학연구』 22(1980), 102;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9;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66-168.

47 이윤경, 윗글, 12.

48 윗글, 5-29. 이윤경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는 민경진, 윗글(2018), 46을 보라.

49 홍경원, 윗글, 44; 배희숙, 윗글, 48.

기도 한다.⁵⁰ 김래용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개혁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해석하고,⁵¹ 넬슨(Nelson)은 “우리는 사면초가에 몰린 소수민족이 종종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변호한다.⁵² 이러한 양 극단의 해석에서 오늘날 독자들은 성경의 진술과 성경 이외의 역사의 자료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³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를 통하여 사마리아 종교,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교와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역사적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적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루어야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곧 정경이 말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면모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행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균형 있게 관찰하는 연구이다.⁵⁴

4) 기타 주제들

위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연구 주제를 소개했다면, 이 외에도 에스라-느헤미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 먼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전까지 학자들은 성벽 중수가 갖는 역사적인 측면과 페르시아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해 왔다. 느헤미야가 예루살

50 배희숙, *빛글*, 45-78.

51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38(2010), 50.

52 리처드 D. 넬슨, 『역사서』(이윤경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16. 원제는 R. D. Nelson, *The Historical Books*(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53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서술 방법론을 위해서는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류광현, 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12)을 보라. 원제는 L.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London: T&T Clark, 2007).

54 홍경원, “관례적 독서로서의 역사비평과 문학비평: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경우”, *신학연구*, 37(1996), 419-434는 이러한 과제를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이 함께 수행해야 할 과제로 표현한다.

렘 성벽을 중수한 것은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페르시아가 식민 통치를 하는 지역에 군사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했다는 설명 등이 그러하다. 또한 식민지 백성에게 성전을 건설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스 4:20; 6:8; 느 5:4, 15) 페르시아는 이전 앗수르나 바벨론의 식민 통치 방식과 달리 평화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최근 우상혁은 예루살렘 성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차원을 연구한다.⁵⁵ 그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둘러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거룩함의 단계에 대한 신학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전을 봉헌한 것(스 6:16)처럼 성벽도 봉헌함으로써(느 12:27) 성전에 준하는 위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앞으로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단지 신명기 신학뿐 아니라 레위기의 신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련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또한 에스라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성서 아람어에 대한 연구가 언어학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Paleo-Hebrew), 성서 히브리어(CBH; Classical Biblical Hebrew), 후기 히브리어(LBH; Late Biblical Hebrew)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구약에서 네 본문(창 31:47; 렘 10:11; 단 2:4 후-7:28; 스 4:8-6:18; 7:12-26)에 나오는 아람어는 성서 히브리어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김래용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람어 서신의 진정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서신의 내용과 짜임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⁵⁶ 배철현은 에스라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에스라 4장 7절하반절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각각 ‘진술하였다’, ‘번역이 되었다’로 번역한 아람어(אָרַם)는 ‘통역되었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또한 김영진은 구약에 나오는 인명에 대한 연구(prosopography)를 통하여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야웨 신

55 우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2016), 33-62.

56 김래용, “에스라서 1-6장의 아람어 서신들의 특징과 역할”, 『신학사상』 148(2010), 7-40.

57 배철현, “에스라기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에스라기 4장 7하반절의 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9(2006), 29-46.

앙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백성의 이름 가운데 신명의 요소가 들어있는 이름이 족장이나 지도자에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포로 공동체나 귀환 공동체의 야웨 신앙이 지도자와 열심히 있는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⁵⁸

양식사의 차원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기도예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⁵⁹ 실제적으로 성서 독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에 대한 실례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시편을 비롯한 구약 본문에서 기도문을 찾고 분류하여 기도문의 요소를 양식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단지 구약주석의 차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기도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3. 맺음말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역대기 역사서를 이루는 하나의 책으로 여겨져 왔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귀환자 명단,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 등 역사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어 독자들에게 읽기 힘들고 따분하게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제2 성전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학과 신앙, 구약의 정경화 과정, 또한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수많은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관계, 역사적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독교와 관련하여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구약 정경화 과정 등의 문제이다. 그런데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연구는 단지 지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종교적으로는 야웨 주의의 전통을 바르게 잇고 전달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58 김영진,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야웨 신앙”, 『구약논단』 10(2001), 103-122.

59 이흥기, “느헤미야 1, 5-11a 고백기도의 문학구조”, 『신학전망』 45(1979), 2-13; 김래용,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기도문의 연구”, 『신학사상』 155(2011), 7-38.

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은 오늘날 사회와 경제적으로는 돈이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는 mammon의 우상을 섬기고, 같은 겨레끼리 평화와 화해를 여전히 이루지 못하며, 밖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신음하는 우리 시대에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개혁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여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4. 참고문헌

- 게오르크 슈타인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12), 457-483. 원저 Zenger, E.,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Stuttgart: Kohlhammer, 2004).
- 김래용, “에스라 3장 1절-4장 5절의 양식 비평적 분석”, 『구약논단』 29(2008), 88-108.
- _____, “에스라서 1-6장의 아람어 서신들의 특징과 역할”, 『신학사상』 148(2010), 7-40.
- _____,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38(2010), 33-53.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기도문의 연구”, 『신학사상』 155(2011), 7-38.
- _____,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목록들의 연구”, 『구약논단』 43(2012), 129-153.
- 김선중, “레위기의 가족구조”, 『신학이해』 43(2012), 7-26.
- 김영진,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야웨 신앙”, 『구약논단』 10(2001), 103-122.
- 김윤이, “에스라는 누구인가?”, 『구약논단』 28(2008), 88-106.
- 김지은, “포로 공동체와 역대기서에 나타난 솔로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2003), 27-48.
- 노만 K. 갓윌드, 『히브리 성서 2 - 사회·문화적 연구』, 김상기 역(서울: 한국

- 신학연구소, 1987). 원제 Gottwald, N. K.,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류광현, 김성천 옮김(서울: CLC, 2012). 원제 Grabbe, L. L.,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London: T&T Clark, 2007).
- 리처드 D. 넬슨, 『역사서』, 이윤경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Nelson, R. D., *The Historical Books*(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마이애스, J. M., 『에즈라; 느헤미야』(국제성서주석 14;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원제 Myers, *Ezra-Nehemiah* (AB 14; New York: Doubleday, 1981).
-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19(2003), 447-462.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17(2005), 78-96.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2007), 112-128.
- _____, “휴 윌리엄슨의 에스라-느헤미야 편집가설 재고”, 『장신논단』 38(2010), 41-63.
- _____, 『민교수의 구약해설』(인천: 도서출판 제이엔케이, 2013).
- _____,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없이 가능한가?”, 『선교와 신학』 36(2015), 75-101.
- _____,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68(2018), 37-61.
- 박준서, 『십계명 새로보기』(서울: 한들출판사, 2001).
-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2016), 125-156.
- 배철현, “에스라기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에스라기 4장 7하반절의 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9(2006), 29-46.

- 배희숙,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유다 재건 정책”, 『장신논단』 30(2007), 45-78.
-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신학적 기원들”, 『구약논단』 47(2013), 133-156.
- _____,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 그룹 ‘하레딤’”, 『성경원문연구』 35(2014), 70-86.
- 에티엔느 트로크메, 『초기 기독교의 형성』, 유상현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원저 Trocmé, E., *L'enfance du christianisme*(Paris: Noësis, 1997).
- 요아힘 에레미아스,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 신약성서 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원저 Jeremias, J., *Jerusalem zur Zeit Jesu*(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우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2016), 33-62.
- _____, “역사를 품은 기도: 느헤미야 9장 5b-37절”, 『구약논단』 68(2018), 118-142.
- 윌리엄슨, H. G. M., 『에스라·느헤미야 개론』, 민경진 옮김(서울: CLC, 2013). 원저 Williamson, H. G. M., *Ezra and Nehemiah*(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유진 H. 메릴, 마크 F. 루커, 마이클 A. 그리산티,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 구약의 세상과 하나님 말씀』, 유창걸 역(서울: CLC, 2016). 원저 Merrill, E. H., Rooker, M. F., Grisanti, M. A., *The World and the Wo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1).
-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5-29.
- 이종우, “에스라개혁의 ‘국제결혼 금지’에 대한 선교적 재고”, 『선교신학』 37(2014), 245-276.

- 이흥기, “느헤미야 1,5-11a 고백기도의 문학구조”, 『신학전망』 45(1979), 2-13.
- 임경철, “느헤미야 리더십 연구”, 『신학지남』 293(2007), 196-231.
- 장일선, “느헤미야 연대에 관한 새로운 고찰”, 『신학사상』 31(1980), 759-768.
- _____, “느헤미야의 사회개혁”, 『신학연구』 22(1980), 93-105.
- 젤린, E., 포러, G., 『구약성서개론』, 김이곤, 문희석, 민영진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원저 Sellin, E., Fohrer, G.,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소형근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원저 Blenkinsopp, J.,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Grand Rapids: Eerdmans, 2009).
- 홍경원, “관례적 독서로서의 역사비평과 문학비평: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경우”, 『신학연구』 37(1996), 419-434.
- _____, “본문의 목적과 독자의 질문-느헤미야의 회고록 읽기-”,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34(2004), 37-58.
- Dorsey, 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 – Malachi*(Michigan: Baker Academic, 1999).
- Frevel, Ch., *Mixed Marriages: Intermarriage and Group Identity in the Second Temple Period*(New York: T & T Clark, 2011).
- Janzen, D., *Witch-hunts, Purity and Social Boundaries: the Expulsion of the Foreign Women in Ezra 9-10* (JSOTS 350; London - New York: Sheffield, 2002).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the Place in Biblical Thought*(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7).
- Koch, K., “Ezra and the Origins of Judaism”, *JSS* 19(1974), 173-197.
- Min, K.-J., *The Levitical Authorship of Ezra-Nehemiah* (JSOTS 409; London - New York: T&T Clark, 2004).

- Saysell, C., *“According to the Law”: Reading Ezra 9-10 as Christian Scripture*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Torrey, C. C., *Ezra Studie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
- Watts, J. W. (ed.), *Persia and Torah: The Theory of Imperial Authorization of the Pentateu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 Weinberg, J. P., *The Citizen-Temple Community* (JSOTS 151; Sheffield: JSOT Press, 1992).
- Williamson, H. G. M., “Origins of the Twenty-Four Priestly Courses”. J. A. Emerton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 30; Leiden: Brill, 1978), 251-268.

검색어

에스라-느헤미야

산발랏과 도비아

신학과 역사

유대교의 기원

혼합 결혼

A Prolegomena to the Study of Ezra-Nehemiah

Sun-Jong Kim, Dr. en théo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Ezra and Nehemiah are the most prominent figures who, along with the Israelite people taken captive to Babylon, returned to their homeland during the Persian era and campaigned for the political, religious, and social reform. With the temple of Zerubbabel and the walls of Jerusalem as their focal point, they worked, and, above all, fought against the religious syncretism caused by marriages to foreign women.

The Book of Ezra-Nehemiah has been criticized as a book that gave birth to legalism and nationalism, reflecting the Judaism of the Second Temple period. However, this era has recently begun to be recognized as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time when the canonization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Pentateuch began to take place and because it is believed to have given birth to the Jewish origin of the New Testament times.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Judeo-Christian tradition, we should grasp the earlier tradition (Deuteronomy, Ezekiel) and the

contemporary tradition (Malachi) that formed the Ezra-Nehemiah's theology, and the later tradition (Maccabees).

Although the Book of Ezra-Nehemiah, along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Chronicles, are traditionally known to be a part of the Chronicler's historical books, the Chronicles and the Book of Ezra-Nehemiah are now considered separate books and thus need to be researched independently. This article aims to function as a prolegomena which introduces various topics for the study of the Book of Ezra-Nehemiah.

Keywords

Ezra-Nehemiah

Sanballat and Tobiah

theology and history

the origins of the Judaism

mixed marriage

- 투고일: 2019년 7월 14일
- 심사일: 2019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29일